

#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

최은주\*

## 차례

- I. 머리말
- II. 김령의 인맥지도
- III. 인맥기반의 형성과 추이
  - 1. 혼맥의 형성
  - 2. 갈등 발생과 인맥의 변화
- IV. 인맥의 관리와 활용
- V. 맺음말

## 국문초록

17세기 禮安의 재지사족 김령(1577~1641)은 27세가 되던 1603년(선조 36)부터 생을 마감한 65세의 1641년(인조 19)까지 장장 39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溪巖日錄』이라 부른다. 일기에는 김령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예안 및 주변 향촌사회의 온갖 사건들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감정과 판단이 비교적 솔직하게 녹아있다. 또 朝報를 얻어 보거나 지인들의 편지 및 풍문을 통해 그때그때의 정치적 동향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역시 꽤 솔직하게 곁들여 놓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김령의 기록 성향에 따른 『계암일록』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단순 사실의 건조한 기록을 넘어 멀고 가까운 주변의 각종 사건들이 자신의 감성과 더불어 생생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그들 각각의 상황과 입장, 그에 따른 처세가 교차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기점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령은 이러한 이야기들에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관객으로 등장하며, 그때마다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자신과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깔려 있는데, 이 관계망은 김령의 삶이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재편 확장된다.

『계암일록』은 당시 정치적 판세의 급격한 변화와 영남 퇴계 학맥의 분화 과정, 그리고 예안 및 안동권 사족들의 복잡하게 얽힌 인맥과 다양한 갈등구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연구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돌아가는 이 시기 향촌사회의 제 방면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밝혀졌다. 다만 기존 논문들은 일기에 담긴 결과적 사실을 수용하여 당시 사회구조를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기라는 기록 자료의 특성과 작성주체의 개성이 함께 설명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본고는 일기의 기록적 속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작성주체인 김령의 시선과 생각을 따라가며 당시 정치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그의 인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계암일록』에 나타나는 김령의 복잡한 인간관계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긴장과 타협, 갈등과 소통을 토대로 확장과 재편을 거듭하고 있었다. 당시 예안과 주변 일대는 훈백과 학백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리저리 뒤얽히고 그에 따라 서로 입장차가 개입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속에서 김령은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이것은 갈등과 대립을 거부했던 그의 타고난 성품과 부친을 통한 가학의 전수로 학통 계승의 이해관계에서 남들보다 자유로운 입장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주제어

계암일록, 김령, 17세기, 예안사족, 인맥

## I. 머리말

17세기 禮安의 재지사족 김령(1577~1641)은 27세가 되던 1603년(선조 36)부터 생을 마감한 65세의 1641년(인조 19)까지 장장 39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溪巖日錄』이라 부른다. 일기에는 김령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예안 및 주변 향촌사회의 온갖 사건들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감정과 판단이 비교적 솔직하게 녹아있다. 또 朝報를 얻어 보거나 지인들의 편지 및 풍문을 통해 그때그때의 정치적 동향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역시 꽤 솔직하게 곁들여 놓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김령의 기록 성향에 따른 『계암일록』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단순 사실의 건조한 기록을 넘어 멀고 가까운 주변의 각종 사건들이 자신의 감성과 더불어 생생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그들 각각의 상황과 입장, 그에 따른 처세가 교차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기점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령은 이러한 이야기들에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관객으로 등장하며, 그때마다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자신과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깔려 있는데, 이 관계망은 김령의 삶이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재편 확장된다.

김령은 광산 김씨 예안파 세거지로 잘 알려진 경상도 예안현 오천에서 자신의 삶 대부분을 보냈다. 퇴계의 제자였던 부친 雪月堂 金富倫(1531~1598)으로부터 가학을 전수하여,<sup>1)</sup> 1612년(광해군 4)에 36세의 나이로

1) 李象靖이 쓴 『溪巖集』의 序文에는 ‘先生生雪月之門。而私淑陶山之教’라는 기록이 있고,

문과에 합격하고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그러나 신체적 부담감과 정치적 여건 상 관직생활이 오래 가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이후에도 줄곧 반복되었다. 대개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던 탓에 김령은 체력적 뒷받침이 늘 약했고, 더욱이 남인계열로 대북중심의 북인정권 하에서 벼슬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인조반정 이후 남인의 정계 진출이 다시 열리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서인의 집권과 점차 굳어가는 그들의 전횡에 대해 김령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身病을 빌미로 체수된 관직을 사양하기에 바빴다. 그는 이렇게 정치적 격변이 심하던 때를 오롯이 살아낸 인물이다. 더불어 이때는 퇴계학과 중심의 남인들이 정치적 영향 및 師承관계에 따른 내부적 분화를 한참 겪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결속을 놓지 않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김령은 여기에서도 꽤나 중심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계암일록』에 담겨 있는 김령의 넓고도 복잡한 인맥 네트워크를 우선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입지를 토대로 구축되는 인맥 기반이 어떤 특징적 면모를 노정하고 있는지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김령의 성장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재편 확장되는지 따라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대한 분량의 일기에 무수하게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김령이 일생을 두고 가깝게 지낸 인물 중심으로 정렬해 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혼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맥 확장 영역을 살펴보고 더불어 갈등 발생에 의해 변화하고 재편되는 인맥 기반을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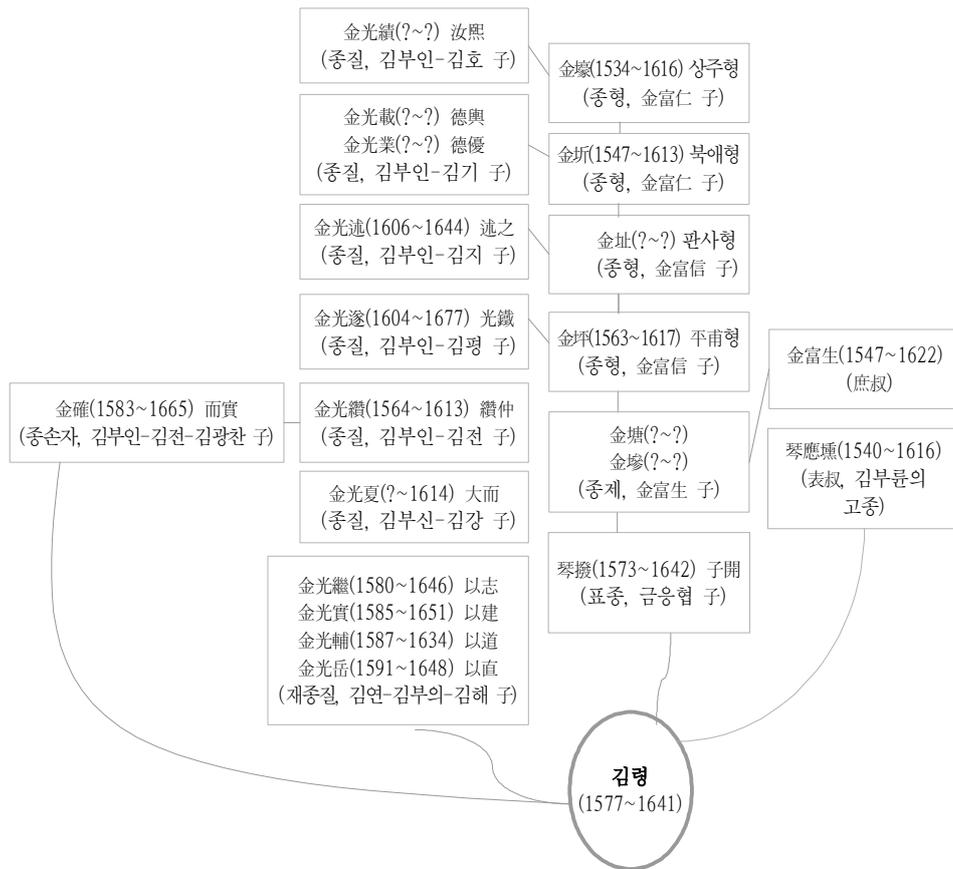
權愈가 쓴 「墓碣銘」에도 ‘先生自幼。雪月公以所聞於陶山者。敎道之’라는 기록이 있어 근거가 된다.

이 이러한 인맥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 가운데 그의 인맥기반이 당시 정치적 상황 및 예안을 포함한 영남 북부 사족 사회의 세 동향과 어떻게 연동되어 움직이는지 그 실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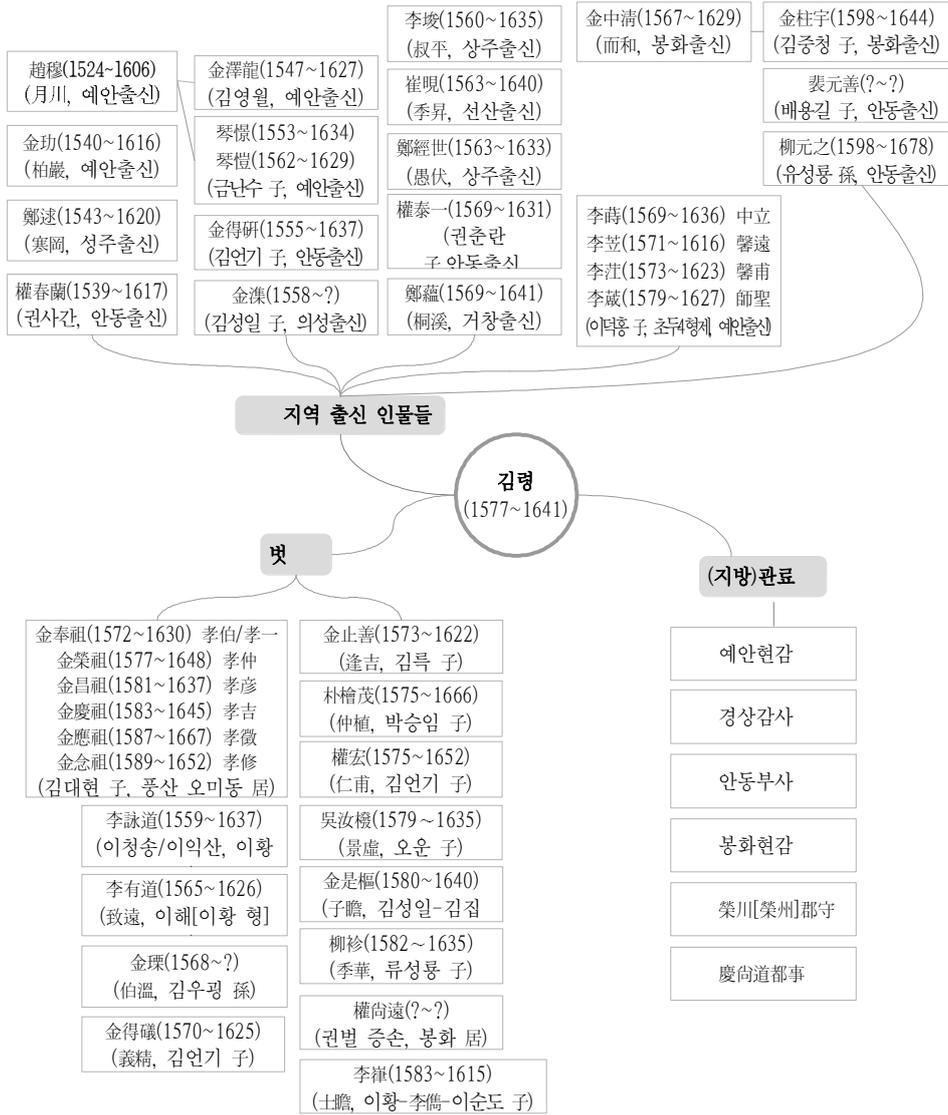
## II. 김령의 인맥지도

『계암일록』 오랜 시간을 두고 기록된 것이기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게다가 김령은 朝報를 얻어 보거나 지인들의 편지 및 풍문을 통해 그때그때의 정치적 동향을 기록하면서 실질적 교류가 없던 중앙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포핍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인물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방대한 기록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김령의 인맥기반을 보다 입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해 인맥지도를 그려 보았다. 대체로 그가 자주 왕래하고 또 오랜 동안 가깝게 지낸 인물들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렬시킨 것이다. 그림 1은 일기에서 자주 교류하였던 혈연 중심의 광산 김씨들을 인맥지도로 정렬한 것이다. 김령의 향촌사회 인맥기반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는 김령이 지역 출신의 누구와 교류하였고, 벗으로 절친하게 지낸 인물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지방관들과 주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정리해 본 것이다. 혼맥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림 1〉 김령의 인맥지도 1 [광산 김씨 예안파를 중심으로]



〈그림 2〉 김령의 인맥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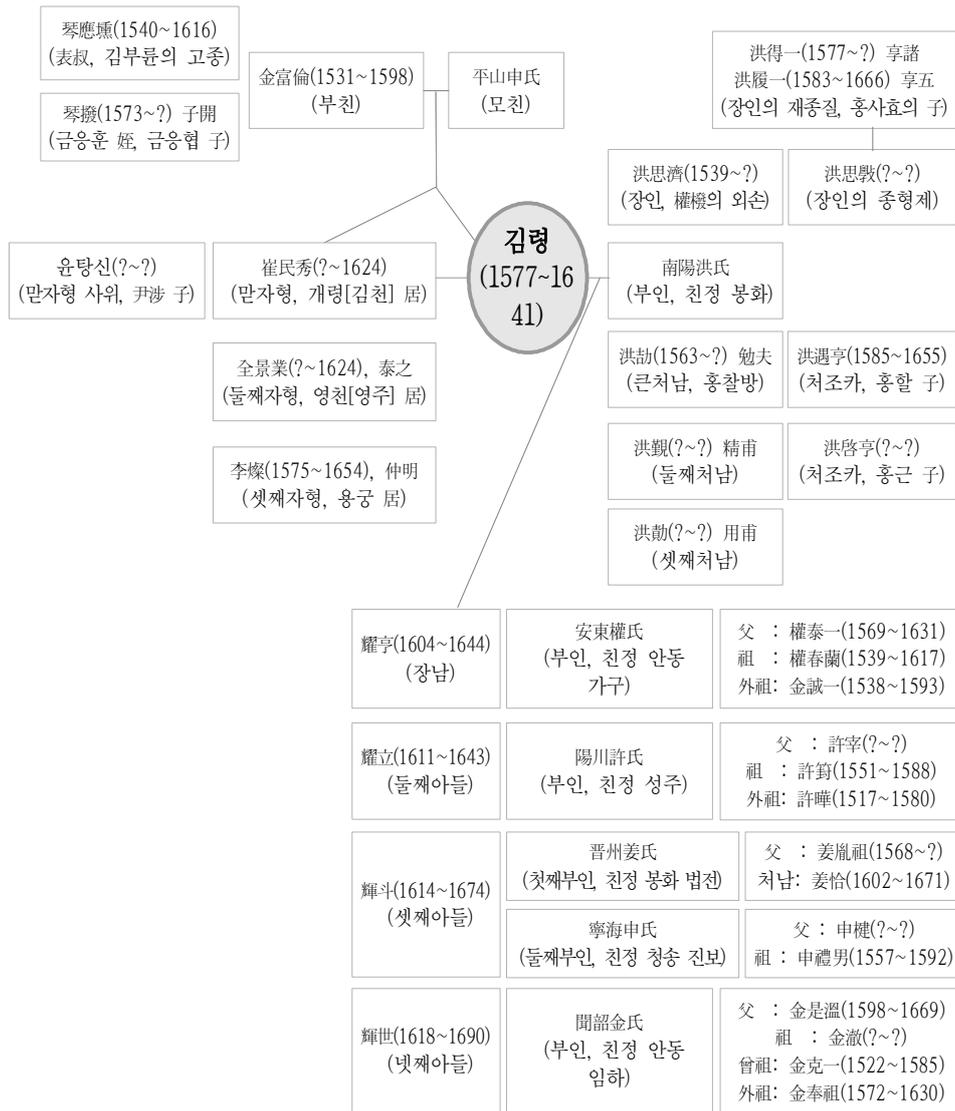


### Ⅲ. 인맥기반의 형성과 추이

#### 1. 혼맥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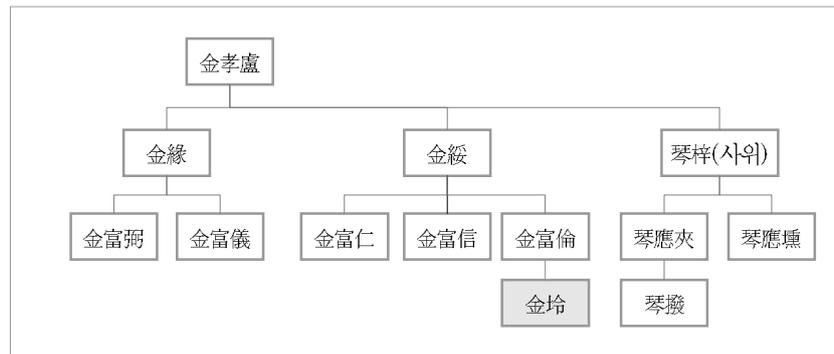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혼인은 인맥구축의 중요한 매개수단이었다. 『계암일록』에는 아버지대부터 자신, 그리고 자식들까지 혼맥으로 연결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김령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영위했는지도 매우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더불어 집안 친족 및 주변 지인들의 혼사가 있을 때마다 그 가문 간의 관계나 상황을 기록하여, 당시 예안을 비롯한 안동권 士族들의 혼인 풍속 및 婚班 형성의 실상에 대해서도 포착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은 일기에서 김령이 교류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비교적 직접적 혼맥으로 연결된 인물들을 추출하여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다.

〈그림 3〉 김령의 혼맥도



혼맥으로 연결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뉘어진다. 먼저 윗세대의 혼맥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매우 가깝게 지낸 인물들이 있다. 바로 勉進齋 琴應燾과 그의 조카이자 日休堂 琴應夾의 아들인 琴撥이다. 이들은 봉화 금씨로 같은 오천에 거주하였는데, 금응훈의 부친인 琴梓(1498~550)가 김령의 증조부이자 예안 오천의 입향조인 金孝盧의 사위가 된다.

〈그림〉 김령의 간략 가계도



금응훈은 일기에서 堤川表叔이라는 호칭으로, 금발은 子開(그의 字)라는 호칭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김령은 이들과 늘 왕래하며 매우 가깝게 지냈다. 더욱이 일기를 쓰던 당시 김령의 숙부 항렬은 모두 작고하고 庶叔과 徹叔만 살아있었으므로, 김령은 이들을 꽤 의지하였다. 표숙 금응훈과는 鄉論 주도와 대응에 있어 입장과 판단에 따라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그는 표숙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걱정하였다. 금발과는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항렬도 같아서 친구처럼 늘 함께 어울렸다.

두 번째는 자신의 누이들이 혼인하여 맺어진 관계이다. 김령은 위로

누나만 3명이 있었는데 그 정의가 아주 돈독하였다. 더불어 자형들과도 잦은 서신 교류와 왕래를 통해 집안이나 鄉中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경조사를 챙겨가며 친밀하게 지냈다. 맏자형 崔民秀<sup>2)</sup>는 字가 學可이며 본관은 和順으로, 개령[김천]에 거주하였다. 그의 집안은 조선 전기까지 관직자를 많이 배출하여 당시 개령을 대표하는 사족 집안 중 한 곳이었다. 둘째자형 全景業은 자가 泰之이고 본관이 竺山으로 榮川[영주]에 거주하였다. 생몰연도가 상세하지 않지만 일기를 통해 보건대 김령과 연배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다. 또 사는 곳이 가까워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으며 많이 의지하고 지냈다. 셋째자형 李燦은 字는 仲明이고 본관은 驪州로 용궁에 거주하였다. 西厓 柳成龍이 그의 외삼촌이었으므로 류성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외사촌 柳軫[류성룡 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김령이 류진과 벗으로 교류하였기에 이찬은 김령과 처남 매부사이면서도 역시 함께 어울려 벗처럼 막역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구축된 혼맥은 누이 내외가 아이들을 혼인시키면서 다시 확장된다. 김령은 조카들의 혼인에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맞이한 새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김령은 1606년 12월 15일 開寧[김천] 생질녀의 혼처를 대죽(大竹) 윤씨(尹氏)네 집으로 정하고 같은 달 22일에 혼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듣고 종을 보내 도와주도록 하였다.<sup>3)</sup> 이 때 개령의 누이 내외가 맞은 사위는 곧 尹湯臣이다. 그는 본관이 坡平으로 장례원사평을 지낸 尹涉(1550~1624)의 아들이다. 용궁 지보면에

2) 『광산김씨예안과보』에는 ‘崔民壽’로 기록되어 있으나, 『和順崔氏世譜』에는 ‘崔民秀’로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따랐다.

3) 金垓, 『溪巖日錄』 “(丙午十二月) 十五日 … 開寧甥女婚。定大竹尹家。今二十二日。命一奴一婢往觀”

거주하였는데, 김령의 생질녀와 혼인한 후로 자주는 아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김령의 집을 드나들었다. 누이 내외가 죽고 난 뒤에도 김령은 누이의 喪事를 부탁하는 등의 일로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1633년 3월 13일의 일기를 보면 윤탕신의 며느리가 김령에게 편지를 보내 온 일이 기록되어 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윤탕신이 자기 종이 劫奸하고 달아난 일 때문에 안동의 감옥에 갇혔으니, 方伯에게 풀어달라고 구명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sup>4)</sup> 당시 방백은 鄭世矩(1585~1635)였고, 김령은 그와 同年이라는 인연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일 후인 17일에 김령은 큰 아이를 안동에 보내 이전에 방백이 김령 자신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대신 사례하게 하면서 윤탕신을 구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그 다음 날 방백이 큰 아이의 편지를 통해 윤탕신을 놓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을 알게 된다. 다른 질서 질부와의 관계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혼맥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시작해 점차 종적 횡적 확장을 이루고, 결국 복잡하고도 중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김령 자신의 혼인이다. 그는 남양 홍씨와 혼인하였는데 곧 승문원부정자를 지낸 洪思濟의 딸이다. 홍사제는 좌의정 休休堂 洪應(1428~1492)의 후예이자 충재 권벌의 외손으로 봉화 奈城에 거주하였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1603년에 장인 홍사제는 이미 작고한 상태였고, 큰 처남 홍할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과 내성을 오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

4) 金玲, 『溪巖日錄』, “(癸酉三月) 十三日 … 朝尹湯臣婦致書。尹以其奴劫奸逃走。見囚安東獄。望其救解方伯矣”

다. 아마도 부친 홍사제가 중앙관직을 역임하면서 그 때부터 서울에 별도의 거처를 마련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큰처남과 그 아들 홍우형[처조카]은 서울에 기거하면서 예안의 김령에게 과거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그의 과거응시와 합격을 적극 도왔다.

- ① 1606년(선조 39) 2월 2일 : 柳季華[류진]가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 편에 洪察訪[홍찰]의 편지를 보았는데, 主上이 즉위한지 40년이 되어 正月 15일에 조정 대신들의 陳賀를 받고 大赦를 내린다고 했다. 그리고 장차 增廣試도 실시하기 위해 式年會試는 가을로 미루었다고 했다.<sup>5)</sup> / ② 1610년(광해군 2) 5월 6일 : 洪遇亨의 편지를 보니, 謁聖試가 이 달 20일로 결정되었고 表文이나 四韻 중에 출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에 올라오라고 부르는데, 쳇병을 앓고 있으니 어찌할까?<sup>6)</sup>

위의 예문에서 큰처남과 처조카 홍우형이 곧 시행될 別試에 대한 정보를 김령에게 전달하고 또 응시를 위해 서울로 올라올 것을 독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홍우형은 김령보다 8살이 어렸지만, 김령이 과거시험에 홍우형과 자주 동행했던 일기 기록으로 보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과거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령은 처남들과도 물론이고 비슷한 연배인 처조카들과도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가하면 이 혼인관계를 매개로 김령의 인맥기반이 보다 확대되는 양상도 포착할 수 있다. 장인 홍사제의 중형제인 홍사효와 그 아들들인 홍득일·홍리일 형제와의 교류이다. 김령은 과거응시를 위해 상경했을 때

5) 위의 책, “(丙午二月) 二日 … 柳季華來話。見洪察訪書。以上四十年即位。正月十五日廷紳陳賀大赦。將爲增廣。退定式年會試于秋”

6) 위의 책, “(庚戌五月) 六日 … 見洪遇亨書 謁聖定今月二十日。表四韻中爲之。邀余上京。病搭奈何”

또 합격 후 승문원 관원으로서 관직생활을 할 때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타향살이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달랬다. 급제의 기쁨은 컸지만 비난해마지 않던 대북정권의 핵심세력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또 과중한 업무를 견딜 만큼 건강이 온전하지 않았으므로 김령의 서울 생활은 녹록치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은 일부 동료들을 제외하고 공적인 관계 이상을 넘지 않았고, 밤낮으로 여유가 있을 때면 처남 홍찰방을 비롯한 처가 쪽 사람들(향제, 향오 형제)을 만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던 것이다.

부모세대에서 연결된 혼맥, 同氣의 혼인으로 연결된 혼맥, 자신의 혼인으로 연결된 혼맥 등은 본인 의지와 선택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자식의 혼인에 있어서는 김령의 선택과 판단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 1636년(인조 14) 11월 25일 : 둘째 아이는 17~18세부터 혼사를 의논한 집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모두 장가들만 하였는데도 곧바로 정하지 못하고 고른 것이 너무 심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역시 나의 잘못이다. 살림이 넉넉한 집이 종종 있었지만,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혼인의 큰일을 어찌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허씨 집안이 타향살이에 चु고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家世를 취한 것이다. 그 나머지는 헤아릴 것이 없다.<sup>7)</sup>

위의 예문은 김령이 둘째 아들인 耀立의 혼인날을 확정된 후,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심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 김령은 60세였고 아들

7) 위의 책 “(丙子十一月) 二十五日 … 次兒自十七八歲。議親某家。非一二處。俱在可取。而不即定焉。選擇頗甚。到今思之。亦吾之過也。饒厚家比比有之。而亦不入意。推遷時月。以至於此。昏姻大事。豈容人爲。今此許家。知其流寓寒窶。而所取家世也。其他不足計”

요립은 26세였다. 둘째 아들의 혼사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바로 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혼처를 고르다가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며느리 陽川許氏는 許宰의 딸로, 조부는 許箒이고 증조부는 許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양친 허씨 집안은 허엽부터 그 아들인 허봉과 許晟, 그리고 허난설현까지 모두 문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당시 정치적 지위도赫赫하였다. 서울에 연고를 두었던 집안이 허재 대에 이르러 어떤 경위로 성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허균이 모반죄로 주살되면서 가문이 흩어져 지방으로 옮겨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튼 김령은 둘째아들의 혼처로 이 집안을 확정하면서 家世를 취하고 다른 것은 따지지 않았다고 몇 차례 언급하였다.

① 1635년(인조 13) 12월 2일 : 許氏 집의 인편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어찌하여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그 집을 선택한 것은 오직 그 家世뿐이다. 그 집 자제인 許(武+山)가 방탕하고 김소하지 못한 것은 알 수가 없었다.<sup>8)</sup> / ② 1635년(인조 13) 12월 12일 : 허씨 택은 서울에서부터 떠돌다가 정착하였는데, 淸貧한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家世가 취할 만한 것이 있었으므로 다른 것은 따지지 않았다.<sup>9)</sup>

둘째 아들의 혼인에서 알 수 있듯이 김령이 자식의 혼처를 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士族 집안으로서의 품위와 대대의 계통이었다.

8) 위의 책, “(乙亥十二月) 二日 … 許家便至今不來。未知何以然耶。吾所取。惟其家世而已。其家子許(武+山)儂蕩無檢。未可知也”

9) 위의 책, “(乙亥十二月) 十二日 … 午星山許家奴來報。以昏期卜開月二十一日。且要衣樣。許家自京流寓。淸貧所不免。而家世有可取。它不計較也”

비록 깨졌지만 韓復胤(1574~1660)의 딸과 혼담이 오고 갈 때도 김령은 ‘그의 문벌은 내외로 빛이 나고, 인물은 선량하였으며, 또한 집안의 법도가 있다고 한다.’<sup>10)</sup>라고 기뻐하면서, 혼처 결정에 대한 자기 기준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 ① 1629(인조 7) 윤4월 16일 : (민성징은) 鄉案에 대한 한 가지 일 조차도 무리하게 향소를 압박질러 강제로 하게 했다. 이는 집안의 비천한 자가 세력 있는 집안과의 혼인했기 때문이었다. 세력 있는 집안은 민성징과 가장 절친했는데, 민성징의喜怒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것이 모두 이로 말미암았다. 세력 있는 집안이 부탁을 하면 민성징은 반드시 그 집과 혼인한 집도 향안에 등재시키려고 하여 향소의 무리가 크게 두려워했다.<sup>11)</sup>
- ② 1637(인조 15) 11월 21일 : 근세의 혼인은 오직 재물과 이익만 알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는다. 만일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 비록 비루하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터지도록 다투어 혼인하려고 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sup>12)</sup>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김령은 혼인을 수단으로 정치 주도세력과 결합하거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재물을 따라가는 혼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령이 자식들의 혼처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확립하게 된 배경을 가늠케 해 준다. 또한 김령은 “而實[金確, 김광찬子]이 善山府使 金孝徵[풍산 김씨]의 집안과 혼인하기로 정하였다. 同姓끼

10) 위의 책, “(癸酉七月) 十五日 … 其門閥內外赫然。人物良善。且有家法云”

11) 위의 책, “(己巳閏四月) 十六日 … 鄉案一事。亦爲無理。規迫鄉所。勒使爲之。蓋家齋內卑者。結婚強宗。強宗與閔最親。閔之喜怒弛張。皆由是。強宗囑之。閔必欲其昏家得參。鄉所輩大惧”

12) 위의 책, “(丁丑十一月) 二十一日 … 近世婚姻。唯知財利。不問如何。苟其饒者。雖可鄙穢。碎首而爭。尙何云哉”

리의 혼인은 퇴계선생께서 경계한 것인데, 지금은 준수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적다.”라고 하면서,<sup>13)</sup> 당시 同姓간의 혼인이 꽤 성행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퇴계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예안을 포함한 안동권 내에서는 지역적인 제한과 퇴계학맥의 동질성이라는 유대감 속에서 혼처를 물색하다 보니,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혼반의 중첩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昏姻破族[혼인으로 종족이 깨어짐]’<sup>14)</sup>도 종종 생겨났다. 한 사례로 김확[而實]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632년(인조 10) 9월 22일의 일기에서 김확은 李巖[진성 이씨, 이안도 양자, 이영도 친자]일가와 切親으로 지내면서 그와 通婚하려 한다며, 이에 대해 破族이기에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일침하였다. 이역의 부친 이영도는 김확의 5대조 김효로의 사위인 琴梓의 사위였으므로 서로 간에 인척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산김씨예안과보』에 의거하면 이 혼인은 결국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령은 당시 혼인 풍속에 대해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자식 혼사를 士族 집안으로서의 家世만 취하여 비록 한미하다 할지라도 성사시켰던 것이다. 셋째아들 輝斗의 혼처를 정할 때에도 그는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켰다.

- 1638(인조 16) 3월 5일 : 아침에 姜恰 군이 琴攬과 함께 왔다. 그의 아버지는 찰방을 역임했는데 이름은 胤祖이다. 병을 무릅쓰고 만나 보았다.

13) 위의 책, “(甲戌正月) 十一日 … 而實與善山宰。金孝徵定昏。姓同之昏。先生所戒。今則遵守者蓋寡矣”

14) 『상변통고』 제6권 「昏禮·議婚」장에 ‘昏姻破族’이 조목이 있는데, 이것은 혼인할 수 없는 일정 범위 안의 혈연관계를 무시하고 혼인하여 ‘종족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술 몇 잔을 마시고 그쳤다. 손님이 마시지 않아서였다. 그는 혼사 때문에 왔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어렴풋이 허락하는 뜻을 보여 주었다. 밥을 먹은 뒤에 손님이 돌아갔다. 대체로 혼사는 막중하여 모두 하늘이 하기에 달린 것이고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할 뿐이다.<sup>15)</sup>

누이의 혼사 때문에 찾아온 姜恰(1602~1671)은 본관은 晉州이고, 字는 正吾, 호는 潛隱·二吾堂이다. 漢陽에서 태어나 申欽과 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3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5년 성균관유생으로 宋時濼과 함께 이이, 성혼의 문묘 배향을 소청했던 인물이다. 병자호란 때 노친을 모시고 태백산 아래 春陽縣 法田里(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로 피난하여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흡 집안이 이러한 내력으로 인해 지역에 전혀 뿌리가 없었으므로, 김령은 혼사를 허락하여 성사시키면서도 다음과 같이 누차 언급하였다.

- ① 1638년(인조 16) 8월 1일 : 姜恰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혼인 날짜를 10월 2일로 잡았다고 했다. 흘러들어 붙어사는 사람이라 그가 가난한 나머지 택한 방편이 사족과의 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 ② 1638년(인조 16) 10월 1일 : ... 흘러들어 붙어사는 집이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각박함을 알지만 단지 사족이라는 것만 보고 그 집과 혼인을 했으니 사람들이 혹시 우환하다고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sup>17)</sup>

15) 위의 책, “(戊寅三月) 五日 … 朝姜君恰與琴攬至。其前察訪名胤祖。力疾見之。數盃而止。以客不飲也。彼以婚事來。不得拒之故。微示許意。食後客歸。大槩婚事爲莫重。而皆在於天行。且觀其如何耳”

16) 위의 책, “(戊寅八月) 一日 … 姜恰致書。兒輩昏期。卜以十月初二。流寓人知其寒窶。而所取士族也”

17) 위의 책, “(戊寅十月) 一日 … 流寓之家。凡事知其涼薄。而只現士族與爲婚。人或以爲迂也”

가문 간의 교환기제라는 측면에서, 士族들은 通婚을 통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기 가문의 기반과 위상을 다지고자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예안을 중심으로 한 안동권의 士族들은 대체로 퇴계학맥이라는 동질성에 기반하여 婚班을 형성 확대하고 있었다. 퇴계의 문하를 드나들었던 과조들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각각 가문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한 가운데 이러한 혼반을 횡적으로 연대함으로써 그 외연을 점차 넓혀가고 있었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령이 자식의 혼사와 관련하여 보여준 모습은 다소 이질적이다. 『계암일록』에도 나타나듯, 주변의 유력 사족 가문들이 서로 사돈을 맺으며 - 예컨대 학봉계와 서에게의 혼맥-연대감을 높이고 지역 세력을 공고히 하는 모습과 대별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 노출했듯이 당시 혼인 풍속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투영되고, 더불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혼인 의례를 자신만이라도 준수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김령의 혼맥은 지역에 뿌리가 없는 사족 집안을 아우르면서, 당시 혼반을 토대로 가문 간 또 학맥 간에 이루어진 세력 확장과 그 주도권 다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었다고 보여진다.

## 2. 갈등 발생과 인맥의 변화

『계암일록』에는 김령의 일생이 당대 정치관세의 변화나 향촌사회의 동향과 연동되어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 인물들과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갈등을 빚고

18) 설석규, 「안동사림의 정치적 분화와 혼반 형성」, 133~136면 참조, 『안동학연구』 제 1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

그에 따라 자신과 상대방과의 심적 거리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일기이기에 지역 대내외적으로 굵직하고 또 소소한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 그 때마다 김령은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관객으로 등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와 판단에 따라 인물들의 행위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기는 사적 영역의 매우 내밀한 기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령이 설사 일기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처사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스란히 겉으로 부각되어 인간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대개는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형성하다가도 다시 이완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또 이러한 모습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수양 부족을 자책하며 스스로 부드러워지고자 애쓰기 때문이다. 일기에서 정치적 사회적 동향에 따른 어떤 사건과 그 관련 인물들의 처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격하게 토로한 것은, 사실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또 비판하는 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 김령은 주변 인물들과 표면적으로 참여한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인맥 네트워크는 전반적 변화의 측면에서 느리게 확장은 지속되지만 급격한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광해군 때 대북정권 당시 벌어진 月川從享 문제와 그것을 추진했던 월천계 문인들의 독단 및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교유하던 인물들과 단절을 시도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sup>19)</sup>

19) 월천종향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이상현의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북악사론』 8집, 북악사학회, 2001)을 전반적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 1612년(광해군 4) 1월 6일 : 낮에 平甫 형·以志·運之가 와서 만났다. 어제 陶山書院의 謁廟會에 대한 일을 언급하였는데, 모인 사람이 겨우 스무 명이었다고 했다. 제천 표숙이 陝川 어른[趙穆]의 從祀를 다음 달로 정하고, 평보 형·尹東昌·李棕을 位版有司로 삼았다. 좌중에 사람이 없었으니 누가 可否를 말할 수 있었겠는가? 제천 표숙이 일찍이 마음으로 덕을 베푼 자들은 또한 甲도 옳다 옳다 하고 乙도 옳다 옳다 하였다. 金澤龍·李笠·朴守諶·金中淸 등의 말을 듣고 鄉中의 선비들이나 인근 고을의 선비들에게는 가부를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였으니 專權이 극에 달했다.<sup>20)</sup>

이 날 김령은 전날 제천 표숙[금응훈]이 월천의 도산서원 중향을 제기하고 본격적 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는 표숙이 김택룡·이립·박수의·김중청 등의 말만 듣고 향중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專權極矣’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것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월천중향을 둘러싸고 예안, 안동, 봉화, 영주, 예천 등 영남 북부 일대에서는 퇴계의 문인들이 월천계 학봉계 서에게 등으로 분화되면서 그 동안 내재되어 있던 대립 갈등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정계에 진출한 일부 월천계 문인들이 대북 정권 세력과 결탁하고, 그 세력에 의지하여 거세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갈등 양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추이 속에서 김령이 위치했던 지점은 분파의 기점에서 보건대 다소 모호하다. 어느 분파에 소속되어 그 입장을 대변했다기보다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당면한

20) 金垓, 『溪巖日錄』, “(壬子正月) 六日 … 午平甫兄以志運之來見。言及昨日陶山謁廟會事。會者僅二十人。堤叔以陝川丈從祀。定於開月。以平甫兄尹東昌李棕爲位版有司。座中無人誰敢可否。堤叔嘗有心所德者。且甲曰可曰可。乙曰可曰可。聽金澤龍李笠朴守諶金中淸等言。不問可否於鄉中士子及隣境士友。擅自爲之。專權極矣”

입장에 의거하여 (비록 일기에는 거침없는 비난과 격한 감정을 쏟아냈지만 언정) 신중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월천중향의 문제가 불거진 후 김령은 월천중향 추진에 가담했던 여러 인물들과 복잡한 관계 변화를 형성한다.

제천표숙 (금응훈, 1540~1616)	월천중향 발론, 독단적 대처를 보이다가 이후 향중 논란을 의식하고 여론을 수렴하자는 제안으로 김택룡·금경 등에게 견제 당함
평보 형 (김평, 1563~1617)	발론 당시에는 위판유사에 임명되며 가담. 표숙 금응훈의 독단에 대해 향중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이후 월천계 문인들의 중향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함
박수의(?~?)	월천 문인, 중형 金岬의 사위.
김택룡(1547~1627)	월천 문인, 월천 중향에 적극 가담하여 추진하면서 반대 세력과 갈등을 빚음. 대북 정권과 별다른 연계는 없음
금경(1553~1634)	월천 문인, 김택룡과 함께 월천 중향에 적극 가담하여 추진하면서 반대 세력과 갈등을 빚음. 대북 정권과 별다른 연계는 없음
김중청(1567~1629)	월천 문인, 중향 추진 당시 예조좌랑으로 있으면서 대북 정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중향의 성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함.
李埴(1571~1616) 李沆(1573~1623) 李臧(1579~1627) 李慕(1582~1639)	李德弘 子, 김중청 문인 李德弘 子, 김중청 문인 李德弘 子, 김중청 문인 李德弘 子, 김중청 문인이자 사위 정계 진출하여 김중청과 함께 중향의 성사를 적극 추진

제천 표숙은 월천 중향 발론 후, 향중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도타운 친분을 유지했던 김택룡과 금경에게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거듭 듣게 되면서 심한 견제를 당하게 되었다. 이 때 김령은

중향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저들의 말만 듣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제천표숙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약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표숙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견제 당하며 곤란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초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며 꽤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표숙과 평보 형을 빼고는 모두 월천 문인들이다. 이 중에서 관계 변화가 두드러지는 인물은 곧 김중청과 그의 문도인 이시 형제들이다. 김택룡과 금경은 김령보다 한참 선배였기에 예안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했으나 교류가 그다지 잦지 않았었다. 추진 과정을 두고 이들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혹시나 함께 하는 자리가 있어도 꺼리며 피하였지만,<sup>21)</sup> 막상 중향이 성사되고 나서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김중청 및 이시 형제들과는 달랐다. 특히 김중청은 월천 중향 이전에는 매우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다. 일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를 두고 字[而和]를 써서 지칭하다가 중향 발문을 기점으로 시종일관 김중청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 ① 1605년(선조 26) 2월 16일 : 알성에 대한 얘기는 헛소문이었기에, 마침내 길을 나섰다. 而和[김중청]와 伯溫[金璫]이 길을 가면서 농담하고 웃겨서 따분하지 않았다.<sup>22)</sup>
- ② 1613년(광해군 5) 8월 5일 : 여름에 李堧·琴標 무리들이 고을 사람들의 이름을 列書하여 방백 尹暉에게 문文하고, 거짓으로 士林의 공론이라고 하

21) 1614(광해군16) 8월 14일의 일기에 “...원장 金寧越[김택룡] 어른이 내일 飲福을 하자고 초대하였으나 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22) 金玲, 『溪巖日錄』, “(乙巳二月) 十六日 … 謁聖虛傳遂行。而和。伯溫。路中諧笑。不至無聊”

였다. 이때 (김)중청이 마침 예조의 낭관이라 기회를 타고 힘을 써서 조정에 啓達하였는데, 주상이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명하여 영상대감 및 원임대신이 모두 그 대강을 듣고 하나같이 回啓하였다고 한다.<sup>23)</sup>

김령은 김중청보다 10년 정도 아래지만 일기를 보면 20대 후반 시절 과거 응시를 위해 상경할 때 곧잘 김중청과 동행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①번 예문의 경우, 당시 과거 응시 차 서울에 함께 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의 기록으로, 그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위안을 삼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월천 종향 발론을 기점으로 급격히 멀어지게 된다. ②번 예문은 당시 예조 낭관이던 김중청이 예안의 금경 그리고 이시 형제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북 정권 조정의 허락을 받아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김중청은 월천의 도산서원 종향 이후에도 1617년(광해군 9)에 이들과 힘을 합해 봉화 창해서원에 퇴계 선생을 봉안하고 월천 從祀를 추진하였다.<sup>24)</sup> 이 때에도 김령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다. 봉안제를 치룬 9월 8일의 일기에서 김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1617년(광해군 9) 9월 8일 : 봉안제에 모인 사람이 예안에서는 琴嶽·李有道·李之馨·金奩 [김택룡 子]·鄭得[김택룡 생질]·李尙迪·柳時元 등 거의 20여 명이고 …(중략)… 그러나 근방의 선비 중에 조금이라도 유식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 퇴계 선생을 모신 서원은

23) 위의 책, “(癸丑八月) 五日 … 蓋夏間並嶽輩。列書北人名。呈文尹方伯。僞爲士林公論。而中清適爲禮郎。乘時用力。啓達於朝。命下議大臣領台及原任大臣。皆聞其大槩一樣回居云”

24) 위의 책, “(丁巳八月) 十七日 … 向晚正兄來話。夕造以志家。月色如晝。話至夜分。以健以道皆在座。聞奉化書院。將以九月初五。奉安退溪先生。從祀月川。皆金中清之所弄也。院長琴學古。通文乞貨物於各邑鄉校書院。尤無理”

영천·안동·예안 세 고을로서 옛날부터 본디 있던 것이며, 그 밖에 뒤따라 세운 것들은 혹 선생과 평소에 인연이 있었거나 혹은 흠모하여 정성을 다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창해서원은 김중청의 본뜻이 선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月川에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선생을 빙자하지만, 월천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sup>25)</sup>

김령은 이 당시 김중청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못마땅했다. 위의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일이 월천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활용하다 보니 時流에 영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령은 김중청과 표면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았다. 피하고 꺼려했지만, 사이사이 그가 방문하거나 시문 청탁을 했을 때 마지못해 만나고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중청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 대북 정권과 결탁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별다른 두드러진 활동은 하지 않았으므로, 김령도 더 이상 비난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김중청이 죽기 전 해인 1628년 11월 15일의 일기에서 그가 아픈 것을 두고 “新安 金而和 [김중청]가 심하게 정신 착란을 일으킨다고 한다. 어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sup>26)</sup>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호칭이 ‘이화’로 변한 것을

25) 위의 책, “(丁巳九月) 八日 … 祭日會者。禮安則琴樞·李有道·李之馨·金瑛·鄭得·李尙迪·柳時元等幾二十人 …(중략)… 近境士子。稍號爲有識有聞者。皆不往矣。夫以先生書院。榮安禮三邑。自昔固有。而其他追建者。或于先生。有平日之緣。或出於欽慕而致誠。至若昌海。中清本意不在先生。只在於其師月川。而慮人心不服。借先生憑藉。而歸重月川”

26) 위의 책, “(戊辰十一月) 五日 … 食後塘及李祇承來。聞金新安而和精神大錯。何以至此。祇承晚飯而歸”

볼 수 있으며 이 뒤로도 그를 언급할 일이 있을 때 ‘新安[신안현감을 역임]’이나 ‘이화’라고 하였다. 또 김중청의 맏아들인 金柱宇가 1624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한 이후 김령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김령은 그와 매우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며 깊이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27)</sup>

이시 형제들과의 관계는 좀 다르다. 당초 서로 간에 출입하며 일정한 교류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주 친밀한 정도는 아니었고, 월천 중향 사건부터 이들은 본격적으로 대북정권과 결탁하여 시류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령은 김중청의 徒弟인 이들을 두고 “하물며 이립의 무리들이 되게 선생의 道統이 월천에게 전해졌고 월천은 중청에게 전했다고 하는 데에라?”<sup>28)</sup>라고 비난하며, 대부분의 교류를 단절해갔다. 그리고 인조반정 후 이들은 중앙의 처벌과 함께 毀家黜후의 향중 처벌을 받으면서 김령의 인맥기반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월천 중향을 둘러싸고 김령이 월천계 문인들과 복잡한 갈등 양상을 빚었던 것은, 왜 월천만 높이는가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월천계 문인들이 퇴계 학통의 전수를 자기 스승으로 두고자 향중의 여론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처리한 것 더 나아가 일부 문인들이 대북 정권과 결탁하여 그 세력에 힘입고자 한 행보에 공분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과 판단은 1619년(광해군 11) 학봉과 서애의 廬江書院 합향 논의가 일어났을 때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만 장기간 펼쳐진 월천 중향 때와 달리, 논의는 분분했으나 단 기간에 성사가 이루어졌고 또 김봉조

27) 김령은 1626년 4월 22일의 일기에서 “그의 의론은 뛰어나고 막힘이 없고 식견이 분명하니, 진실로 재주가 빼어나다고 이를 만하였다”라고 하였다

28) 金垓, 『溪巖日錄』, “(壬子二月) 十三日 … 况李笠輩。以先生道統。傳之月川。月川傳之中清”

[류서룡 문인, 여강서원 원장]·金是樞[김성일 손자, 류서룡 문인] 등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인물들이 관련하여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보다는 우려와 탄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당시 여강서원 원장 김봉조가 임천서원 원장 鄭侗(1569~1639)과 함께 합향을 제안한 명분이 비교적 합리적이어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즉 한 府에서 여러 서원이 건립되고 또 그에 딸린 人丁이 불어나 군역의 결원이 발생하여 나라의 폐단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서애와 학봉을 여강서원에 합향하여 그 폐단을 줄이고 더 붙여 명현을 한 곳에 모아 영구히 안치할 수 있는 방책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김령은 이 때 도산서원 원장으로서 여강서원과 임천서원에서 함께 보낸 이러한 요지의 통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620년(광해군 12) 10월 10일 : ... 들으니, 이미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편리하게 여긴다고 하나, 내가 생각건대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무엇인가. ...(중략)... 세 서원이 하나로 되면 어찌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치를 하는 중에 만약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있던 그대로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대개 양 공의 경지를 쉽게 감과 을로 정할 수 없고, 벼슬이나 나이로 누가 앞이 되고 뒤가 되는지를 쉽게 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양 공의 위판에 '선생'이라는 명호를 쓰는 것은 각각의 서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퇴도선생의 사우에서는 결코 모두 아울러 선생으로 칭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이 몇 가지의 조목이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절목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틀림없이 깊이 기획했을 것이므로 答通도 그에 따라 좃았다.<sup>29)</sup> ...

29) 위의 책, “(庚申十月)十日 ... 聞已此皆以爲便。而余則竊有慮焉。何者。...(중략)... 三院爲一。豈非便好之道乎。但以舉措之間。若未盡善。則不若仍舊不爲之爲愈。蓋兩公所造。未易甲乙。而以爵以齒。孰爲先後。兩公位版。書先生之號。在各院則可。至於吾先

김령은 합향의 추진을 두고 세 서원이 하나로 되면 나라의 폐단을 줄이게 되니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우선 찬성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우려하는 점을 드러내었는데, 곧 합향에 있어 두 사람의 위패 위치 및 명칭 등등의 문제가 처리에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김령은 저들이 틀림없이 깊이 헤아렸을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그에 따라 찬성의 답통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였다. 김령이 답통을 보낸 후에 접한 소식은 김봉조와 정전 두 사람이 ‘묻고 의논하여 사림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는 말을 썼지만 당초 안동 사림들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하여 나중에 들은 사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또 從享이라고 했지만 配享의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김령은 “그들의 의도가 실제로 그들이 스승으로 삼은 사람을 높여 선생으로 추송하여 한 사당에 배향하려는 것이라면, 폐단이 우려 된다.”<sup>30)</sup>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령은 뒤이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1620년(광해군 12) 10월 10일 : ... 근년에 月川の 제자들이 한 처사가 아주 바르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모두 언급했었다. 어찌 우리들이 스스로 그 전철을 밟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할 줄을 알았겠는가. ...(중략)... 오직 우리들 몇 명이 한 뜻이 되어 다른 우려가 없도록 보증할 수 있었으나 결국은 이와 같게 되었으니, 어찌 한 목소리라는 이유로 구차하게 온당치 못한 처사를 따르겠는가. 이로부터 장차 저들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 있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더욱 탄식할 일이다. 또한 장차 어찌하겠는가. ...<sup>31)</sup>

生之廟。則決不可。並稱先先。凡此數條。皆難處之節故。余未免有過慮。雖然彼必熟壽之故。答通亦從而順之 ...”

30) 위의 책, “(庚申十月) 十日 ... 然則詢謀僉同之云。皆詭言也。其意。實欲尊其所師。追擬先生。配享一廟則慮弊 ... ”

31) 위의 책, “(庚申十月) 十日 ... 頃年月川門徒處事極不正。人皆言之。豈知吾儕有躬自蹈

김령은 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스승을 높이기 위해 사림의 공론을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면서 실망과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견해라도 온당치 못한 처사는 따를 수 없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시 저들과 자신들 사이에 의심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 한 발 물러나 버렸다. 김령은 김봉조를 포함한 풍산 김씨 7형제[김대현 子]와 깊이 교류하였고 그 중에서도 김영조[孝中]와는 연배가 비슷하여 더욱 가깝게 지냈다. 합향을 4일 앞둔 10월 30일에 김영조[삼계서원 원장]가 김령을 방문하였다. 이야기가 합향에 미치자 김영조가 “중향을 할지 배향을 할지는 나도 아직 모르네. 비록 그렇지만 틀림 없이 중향일 것일세. 어찌 배향이겠는가?”라고 한 것에 대해, 김령은 웃으면서 “제향 기일을 단지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중향인지 배향인지 그 결정을 모르면 이 얼마나 큰일인가?”라고 했다고 쓰고 있다.<sup>32)</sup>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월천 중향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합향[11월 4일]을 마치고 3일 뒤인 7일에는 金是樞[子瞻]가 김령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과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서 김령은 “그대는 틀림없이 우리들이 여강서원 행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안색을 바꾸는가?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째서 굳이 나의 술을 거절하는가?”라며 달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33)</sup> 이 말을 듣고 김시추는 다소

其轍而不悟其謬耶。…(중략)… 惟吾輩若干爲同人。可保其無他虞。而畢竟如此。豈可以同聲之故。而苟從其不當之事乎。自此將未免有彼我之疑。則尤可歎也。亦將奈之何哉”

32) 위의 책, “(庚申十月) 三十日 … 夜深金孝仲至。以三溪院長。亦赴廬江也。聯枕話。話及廬江事。孝仲云。從與配。吾亦時未知焉。雖然必從享矣。豈是配享哉。余笑曰。享期只間一二日。而猶未知從配之決。此何等舉措也”

33) 위의 책, “(庚申十一月) 七日 … 見子瞻跪。坐言類有異於昔。直道云。君必以我輩不往

풀어져서 김령이 주는 술을 조금 받아 마셨다고 쓰여져 있다.

『계암일록』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사건은 당시 예안을 비롯한 영남 사족들의 동향과 인맥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더불어 예안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던 김령의 인맥 기반이 시간의 흐름과 맞닥뜨리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재편 정렬되는지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위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령이 살았던 당시의 영남 사회는 퇴계학과 중심의 남인들이 정치적 영향 및 師承관계에 따른 내부적 분화를 한참 겪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결속을 놓지 않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한다. 월천·서애·학봉의 문인들은 크고 작은 대립 관계를 이어가며 미묘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령은 그 어느 지점에 위치했던 것일까? 세 사람 중 누구와도 뚜렷한 학연이 없었던 김령은 ‘퇴계선생의 추승’이라는 근본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퇴계에 기대어 자신의 스승을 높이려는 각 문인들의 의도적 행위에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부친 김부륵에게 가학을 전수하였으므로 어떤 계열의 입장에도 휩쓸리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다만 평생 마음을 터놓으며 절친하게 지냈던 김영조나 류진[류성룡 子]과의 인맥을 엄두에 두고, 또 월천 중향과 서애·학봉의 합향에 대한 그의 대응 정도를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친서에게 정도로는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월천 중향에 대해 김령이 강도 높은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며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정치적으로 대북지지 세력과 반대북 남인 세력 간의 대립 갈

廬江故。作色如是耶。雖然何爲固拒故人酒乎。子瞻稍飲焉<sup>7</sup>

등이 존재했던 탓도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김령의 인맥 기반은 교유 인물의 숫자나 친소 관계의 정도로 볼 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에게 문인들이 많은 비중과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학봉계 문인들, 그리고 외곽에 월천계 문인이 소수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인맥의 관리와 활용

예안의 명문 사족 집안에서 태어난 김령은 어려서부터 家世를 바탕으로 삼아 혼반과 학연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탄탄한 인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인근의 사족 집안 대부분과 내왕하며 일정한 친분을 유지하였고, 다소 먼 곳의 사족이라 하더라도 기구축된 인맥 기반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져 교류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의 인맥 기반에서 다소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문과에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했지만 대북 정권의 상황이 매우 불편했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했던 탓에 관직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정치적 동료로서의 인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조반정 후 지역의 많은 南人들이 정계에 다시 진입하고 더불어 그 역시 조정에서 수차례 관직을 제수 받아 지역 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관계로, 정치적 동료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정치적 인맥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도 그렇듯이, 인맥 기반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적시에 협조를 구해 활용이 가능한 영역은 바로 이 정치적 인맥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일기를 통해 파악되는 김령의 현실적 성향은 매우 신중해서 가능하면 갈등의 소용돌이에 직접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비록 일기라는 내밀한 기록의 속성상, 세계에 대한 그의 거침없는 비판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과 판단일 뿐이다. 그렇게 썼다고 해서 김령이 현실에서 자기 생각대로 好惡를 드러내며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기에서 김령은 예안 및 그 주변 고을 수령들과 경상감사에 대해 그 정치 능력과 인품에 대해 꽤 세밀하게 묘사하며, 형편없는 인물이 부임했을 때는 고생하는 백성들 때문에라도 못마땅한 마음을 격하게 쏟아내었다. 그러나 그는 표면적으로 수령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관리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관리적 차원의 모습으로 부각되는 예를 하나 들면 아래와 같다.

① 1632년(인조 10) 3월 24일 : 예안 현감[금상현]이 편지를 전하여 문안하였는데, 말이 매우 거만하여 비록 ‘僕’이라 칭하였지만 끝부분에는 다만 이름과 ‘顧’이라고만 썼다. 이 사람이 일찍이 도산서원에 齋生으로 있었을 때, 나는 院任으로서 여러 달을 서로 보며 지냈는데, 그때는 심히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였었다. 그리고 갑자년(1624) 겨울, 나를 城南[남대문 밖]의 거처로 보러 왔을 때도 전과 같았으니, 때때로 俯伏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金尙容 형제에게 붙어 이에 이르게 되자 곧 기세를 부리니, 세태가 진실로 이와 같다.<sup>34)</sup>

② 1632년(인조 10) 8월 18일 : 예안 현감[금상현]이 어제 온 것은 다른 일

34) 위의 책, “(壬申三月) 二十四日 … 地主貽書以問。辭甚倨稱僕。而末只書名顧。此人曾於居齋陶院時。余院任。累月相見。甚卑恭。甲子冬。見余城南寓舍亦如前。或時俯伏。爲托金尙容兄弟。得至此使。逞氣世態。固如是也”

때문에 온 것이었으니, 반드시 사례할 필요는 없겠으나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므로 억지로라도 사례를 해야 하였다.<sup>35)</sup>

①번 예문은 신임 현감이 부임하여 김령에게 문안 편지를 보냈는데 예전과 달리 매우 거만해졌음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그리고 ②번 예문은 그런 현감이 자기를 방문한 것에 대해 사례를 하려는 뜻을 기록한 것이다. 다른 일 때문에 왔다 간 것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반드시 사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의 인간됨을 생각할 때 김령은 내키지 않지만 사례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김령이 이러한 인맥을 굳이 활용의 목적으로만 관리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김령의 현실적 성향이 강하게 투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 인맥을 이용하여 사적 청탁을 주고받는 부정적 사례들에 대해 그는 일기 곳곳에서 매우 비판적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의 예문은 그 중 한 부분에 해당한다.

- 1629년(인조 7) 8월 21일 : 宋象仁이 비록 가혹하고 사나웠지만 큰 줄거리는 자못 불만한 점이 있었는데, 민성징은 하찮고 자잘하여 부정도 많다고 여겼다. 가령 그와 절친한 사람이 청탁하면 모두 그들이 뜻한 대로 이룰 수 있었다.<sup>36)</sup>

35) 위의 책, “(壬申八月) 十八日 … 地主之昨來乃仍事。回謝不須爲。而癡人好自尊。所當勉強爲之。食後伯兒暫往見。居鄉之故也”

36) 위의 책, “(己巳八月) 二十一日 … 宋象仁雖苛猛。大綱領。頗有可觀。閔則以爲卑冗。多有不正。苟其所切請囑。皆得如計”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이 개인적 청탁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대개는 자신의 직접적인 일이 아닌 주변 지인들의 부탁이 많았는데, 상황에 따라 김령은 명분을 내세워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자기와 同年이며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鄭世矩가 경상감사로 부임했을 때 영해의 이부일이 영해부사와 옥사가 벌어져 김령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령은 감사가 부탁하는 편지를 몹시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영해부사가 관련된 큰 송사이기에 함부로 청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말하면서 이부일을 달래었다고 하였다.<sup>37)</sup>

드물긴 하지만, 김령이 자신의 일로 정치적 인맥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 1623(인조 1) 8월 16일 : 오후에 裴澤全과 裴潤全이 서울에서 와서 耀亨과 而實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탈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워하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편지에, 사헌부가 告變으로 인한 推鞠 때문에 간원들이 헌부에 모두 모일 겨를이 없었으므로 이때까지 변론을 한 문서에 헌부의 결정을 받아 바로잡지 못했으나, 南原 鄭輝遠[鄭蘊]이 마침 도성에 있어서 온 힘을 쏟았고, 洪 南原 令公 및 忠義衛 金德元 씨, 趙汝順 무리들이 다 마음을 기울여 거의 희망이 있을 듯하다고 한다.<sup>38)</sup>

이 해에 손씨의 偷葬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볍게 끝날 줄 알았던 송사가 상대방의 집요한 呈狀으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대립이 심해지게 되

37) 위의 책, “(癸酉三月) 二十五日 … 昏黑寧海李傳逸與礎來。晦叔之姪也。以其奴被殺於府伯。觸府伯怒。仍成大獄。並欲治李輩報請刑推。事勢甚急。索余書求解于方伯。其節栢。誠爲矜惻。第方伯。極以囑東爲厭。而閹梗甚苛。胡可冒請。况此大訟。事涉府伯。尤不可作書也。當奈何說盡情實。李猶不以爲然。尤可恨”

38) 위의 책, “(癸亥八月) 十六日 … 午後裴澤。全潤全至自京城。傳耀亨及而實書。知可無恙。慰瀉戀懷。憲府以告變推鞠。未暇齊坐府中。以是時未呈卞決正。而鄭南原輝遠適在都下。爲之盡力。洪南原令公及金忠義德元即趙汝順輩皆致念。庶有可爲之望”

었고, 나중에 이 손씨들이 사헌부에까지 呈狀하여 일이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김령 쪽에서도 서울에 상경하여 대변이 불가피해졌는데, 위의 예문은 이 때 조정에서 힘써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 V. 맺음말

『계암일록』은 당시 정치적 판세의 급격한 변화와 영남 퇴계 학맥의 분화 과정, 그리고 예안 및 안동권 사족들의 복잡하게 얽힌 인맥과 다양한 갈등구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연구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sup>39)</sup>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돌아가는 이 시기 향촌사회의 제 방면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밝혀졌다. 다만 기존 논문들은 일기에 담긴 결과적 사실을 수용하여 당시 사회 구조를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기라는 기록 자료의 특성과 작성주체의 개성이 함께 설명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본고는 일기의 기록적 속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작성주체인 김령의 시선과 생각을 따라가며 당시 정치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그의 인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계암일록』에 나타나는 김령의 복잡한 인간관계망은 시간의 흐름 속

---

39) 이와 관련하여 박현순의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6)과 이상현의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북악사론』 8집, 북악사학회, 2001) 등이 있다.

에서 긴장과 타협, 갈등과 소통을 토대로 확장과 재편을 거듭하고 있었다. 당시 예안과 주변 일대는 혼맥과 학맥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리저리 뒤얽히고 그에 따라 서로 입장 차가 개입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속에서 김령은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이것은 갈등과 대립을 거부했던 그의 타고난 성품과 부친을 통한 가학의 전수로 학통 계승의 이해관계에서 남들보다 자유로운 입장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상변통고』

『광산김씨예안과보』

김령, 『계암일록』

김령, 『계암선생문집』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북악사론』 8집, 북악사학회, 2001, 37-93쪽.

설석규, 「안동사림의 정치적 분화와 혼반 형성」, 『안동학연구』 제1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 95-147쪽.

Abstract

Formation of 17th Century Learned Man of Ye-an, Ryeong Kim's  
Personnel Connections Base Investigated through  
*Gye-am Daily Journal*, Its Extension and the Meaning of Change

Choi, Eun-Ju

Ryeong Kim(1577~1641), the country nobility[Jaeji Sajok] of the 17th century Ye-an, kept a diary almost every day during the long period of 39 years from his age 27, 1603(Seonjo 36 years) until his death at 65, 1641(Injo 19 years), which diary is called as 『Gye-am Daily Journal』. In the diary, various events of Ye-an and surrounding Hyangchon(country districts) society along with Ryeong Kim's daily life are relatively frankly included. Also, while recording the political tendency of that period almost in realtime through reading obtained Jobo or acquaintances' letters and rumor, he also added his thought on the events considerably frankly. These contents are comprehended as the characteristic of 『Gye-am Daily Journal』 according to Ryeong Kim's record tendency. Because every distant and nearby events around him are vividly written along with his own sensitivity, beyond a dry record of simple fact. And there are people in the center of all the stories. Many conflicts occurred through the cross of each of their situation and position, and their conduct according to them, and a series of events occurred with the starting point of that conflict. Ryeong Kim came on those stories sometimes as the supporting actor and sometimes as the audience, recording the events in view of each of the situation. On the foundation, there was the network with many people, which is tangled between himself and others like a net, which consistently changed, reorganized, and extended while his life went on.

『Gye-am Daily Journal』 early attracted attention as the research data in respect that it contained rapid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of that time, division process of Yeongnam Toegye School, and complexly tangled personnel connections between Ye-an and Andong region sajok(nobility) as well as various conflict structure. Accordingly, various aspects of Hyangchon(country districts) society of that time, which is operated by being closely connected with the central political situation, were identified in detail. However, in respect that the previous researches intended to analyze the social structure of that time by accepting the consequential fact contained in that diary, there was a lacking point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history data, a diary, and the individuality of the preparation subject were not explained together. This paper aimed at investigating in which point he existed and how he was positioned ther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of that time through his personnel connections network establishment by following the preparation subject, Ryeong Kim's view and thought, first keeping the historical attribute of diary in mind.

Ryeong Kim's complex personnel network in 『Gye-am Daily Journal』 repeated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based on tension and compromise, conflict and communication in the stream of time. At that time, various conflicts ceaselessly occurred through the tangling and cross of marriage ties and school ties in Ye-an and the whole surrounding area, accordingly, the intervention of different position of each other occurred. In this situation, Ryeong Kim held on to a relatively neutral position, without being swayed by either side, which is determined that this is the result that his natural personality, who refused conflict and opposition and his position acted, which is more liberal than others in the interested relation of school ties succession with the transference of Gahak through his father.

#### Key Word

Gye-am Daily Journal, Ryeong Kim, the 17th century, Ye-an sajok(nobility), personnel connections

- 논문투고일 : 2014.7.5. 심사완료일 : 2014.8.6. 게재결정일 : 2014.8.12.